

# 學術 情報 廣場으로

學術委員長 李 麟 星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고 그리스 고  
대학자 유베나리스란 사람은 말하였다 건강이란 충  
실한 마음과 건전한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하나  
같이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평생을 뛰고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인생 최고의 행복은 五福을 갖추는 것  
이라고 하였는데 그 1이 長壽요, 2가 康寧, 3이 天壽라 하였고,  
4, 5를 富와 德이라고 하여 한결 같이 건강과 직결된 것들을 들고

있어 건강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있다.

그러나 건강은 노력없이 얻을 수 있는 안이한 것들이 아닌 것이니 사람마다 타고난 素因  
이 다르고 체격, 기능, 생활환경들이 같지 않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遭遇 되는 바 큰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학설을 주창한 캐나다의 세리에 라는 사람은 일찍이 「만인에게  
공통된 건강법은 없다」고 하여 특수한 하나의 방법이나 약제로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병도 가지가지이고 그에 대한 진단, 치료에 나날이 새로운 방법  
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체질이 다르듯 의사들의 처방도 한결 같지 않아 각자의 애용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 자기 혼자만의 특수 치료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결 같지 않는 치료방법들을 하나로 도출하기 위하여 지금도 전세계의 의학자들은 서로서  
로 최신 정보를 교환하면서 병마와의 피나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은 경험이 총괄된 의학이라고 한다. 수천 년에 걸쳐 수 많은 질병과 싸워오면서 얻  
은 귀중한 경험들이 韓醫學의 術과 學을 더욱 빛내 준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한의학의 독특한 이론 體系下에서 얻어진 소중한 경험들이라는 것임을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이다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그기능과 건강 질병 치료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문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초 이론이 튼튼하여야 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임상 경험은 자신의 체험은 물론이려니와 著名한 醫家의 경험들을 학습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이를 수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니 이를 취용함에 있어서도 체질과 환경들을 취합하여 適宜한 適方을 選別할 것이니 자고로 인간은 나의 선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보다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독점욕이 강한 면이 있었으며 특히 한의약 업계에 있어서는 한층 심하였다고 할 것이니 오랜 세월 속에서 축적한 경험 비방들을 독점 秘藏하여 스스로의 우월감 속에서 인술업이라는 것을 망각하였고 이러한 이기심들이 한의약 발전을 저해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 한약제도 변하였으니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야 할 때이다 청산하여야 할 아집과 독점욕을 털어 버리고 인류의 공존공영과 중생의 병고를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모두다 인술업의 본분으로 돌아가 상호 정보의 교환과 우수 처방의 취합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그 광장으로 우리의 會誌 「大韓韓藥」을 심분 활용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행이 본 2호에서는 좋은 優秀名方이 많이 발굴되어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여러 회원들의 많은 활용으로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이와 같이 좋은 광장을 만들어 주신 姜容鉉회장과 여러 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3호의 탄생을 위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바란다

1998 3.